

[사회]

고가 의료장비 보유율 불균형 심각

광주 전국 최고, 전남 최하위권

우리나라에는 경제수준이 높은 선진국보다 고가 의료장비가 많고, 지역별로는 광주의 고가 의료장비 보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남지역의 경우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옹영호 연구원과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은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 적정수급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준 자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5년 헬스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주요 고가

의료장비의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분포를 살펴봤다. 분석결과 2005년 6월말 현재 인구 10만명당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보유대수는 광주가 1.56대로 전국 평균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체외충격파쇄석기(ESWL)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의 경우도 광주지역이 각각 1.35대와 4.19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0.46대와 2.11대로 가장 적은 인천지역과 비교하면 2~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광주지역은 혈관조영장

치(ANGIO)와 디지털 방사선촬영장치(CR·DR), 감마카메라(Gamma Camera) 등의 보유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남지역은 MRI와 CT 등이 전국 평균 대수보다 낮았지만 혈관조영장치와 방사선치료장비(Radiation Therapy Equipment)의 보유대수는 전국 최하위권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지역간 고가 의료장비 분포의 불균형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무분별한 고가의료장비 도입과 남용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적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통한 공급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한주기자 ahj@kwangju.co.kr

중영사관 유학생 동원했다

'성화 폭력' 영장은 기각...광주 체육대회 무기 연기

중국 영사관이 베이징올림픽 성화 서울봉송 행사에 중국인 유학생을 단체로 인솔해 상경하고 교통편까지 지원한다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2일 부산경찰청과 신라대 등에 따르면 부산 중국총영사관 장모(28) 교 육영사는 지난달 20일경 신라대 대외협력처에 전화를 걸어 부산 거주 중국 유학생들이 성화 서울봉송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요청해 학교측에서 학교버스 4대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버스에 신라대 중국인 유학생 150여명이 탑승, 상경해 성화봉송행사에 참가했다.

이들 중 폭력사위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유학생 진모(20)씨에 대해 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서울 동부지법 최봉희 영장전담판사는 2일 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범죄사실 다 인정하고 동영상 등 증거자료가 다 확보해 증거인멸우려가 없다"며 진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3일 광주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 우호교류의 날 및 제1회 호남지역 중국 유학생 체육대회'가 무기 연기됐다.

중국대사관 광주 영사사무소는 2일 "중국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폭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도 중 자칫 중국 유학생들의 감정이 폭발할 수 있어 대회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중국 대사관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대회는 올 가을께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



예술 꿈나무들의 남도 민요 합창 2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 53회 호남예술제 국악 부문 경연에서 나주초등학교생들이 남도 민요 합창을 선보이고 있다. /위지량기자 jwi@kwangju.co.kr

성폭력 예방 '스쿨 폴리스' 유치원에도 배치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대구 집단 학생 성폭력 사건 등과 관련, 각급학교 성폭력 예방교육과 예방 시설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회 상임위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퇴직 경관이나 교사 등으로 구성된 스쿨 폴리스를 대폭 늘려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CCTV를 초·중·고등학교로 확대, 올해 중 1천500여대를 추가 설치한다. /연필뉴스

5·18묘지 버스 30분에 단 한대라니...

방문객들 "노선 늘려주소" 잇단 요구

5·18광주민주화운동 28주기를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이하 5·18묘지)로 가는 시내버스 노선이 너무 적어 방문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5·18묘지 관리사무소는 광주시에 일부 시내버스 종점을 5·18묘지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달 26일 대학생 강모(26·광주시 남구 노대동)씨는 5·18묘지에 가기 위해 버스를 세 번이나 갈아타야 했다. 특히 묘지 인근까지 가는 버스는 30분에 한 대 밖에 운행되지 않아 버스를 기다리는데 긴 시간을 허비해 야했다.

강씨는 "5·18묘지에 갈 때마다 교통편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승용차가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하다"며 "인근 도시로써 5·

18민주화운동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광주시에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5·18묘지까지 운행하는 버스는 518번 한 대뿐. 그나마 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기점인 삼두지구에서부터 걸리는 시간은 무려 1시간20분에 달한다.

관리사무소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10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5·18묘지'가 도심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외곽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을 경유하는 시내버스(518번)는 1개 노선만 운행돼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이 크다며 '일부 시내버스 종점을 변경해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세계속의 민주·인권·평화 도시 육성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관리사무소의 요구는 현재 광주 시 북구 장동동 종점까지 운행하는 06번·17번 등 버스 10개 노선을 민주묘지 인근까지 늘려달라는 것이다. 종점이 연장될 경우 경유지도 6곳이 늘어나게 되고 시간도 3분이 더 걸리게 된다.

이러한 요구에 광주시는 지난달부터 518번을 한 대 증차(8→9대)에 배차 간격을 5분 줄이는 등 일부 반야를 엮지만 나머지 종점 연장 문제는 '재정적인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이 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생활 게시판

환측

▲인경찬씨 장남 효중군 신양수(광주일보 총무국)씨 3세 주희양=4일(토) 낮 12시30분 부평 축제 웨딩홀부대 12층. ▲이현철씨 차남 주관군 조경남(서울유유)씨 장녀 은정양=4일(일) 낮 12시40분 운양동 그랑시아 아워타워 2층 사카이어홀. ▲이영기씨 장남 상원군 정향태(광주세무서 조사과)씨 차녀 고은양=5일(월) 낮 1시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 2층 그랜드볼룸. ▲장영식씨 3남 태훈군 김희만(전 광주 서구청 경제과)씨 장녀 무영양=3일(토) 오전 11시40분 상록웨딩홀 3층 무궁화홀. ▲박학욱(전 전남교육연구원 총무과장) 장남 준철군 이준영(덕인페이퍼 대표이사)씨 장녀 초은양=3일(토) 낮 12시 에이블루스 웨딩컨벤션 2층 라벤더홀. ▲유민용(하남금융 대표)씨 장남 시훈군 김창순씨 5녀 희진양=3일(토) 낮 1시 상무리츠컨벤션 웨딩홀 2층 데이지홀. ▲이명희(북전주세무서장)씨 장남 길현군 이외권씨 장녀 현주양=3일(토) 낮 1시 전주 임페리얼웨딩홀 2층 임페리얼홀. ▲김영수씨 차남 재홍(사도요

Table with columns: 국악, 심사위원, 최재원 교수(전남대), 서 담 교수(전남도립대). Lists names of performers and judges for the 53rd Hwangnam Arts Festival.

* 최고수 수상자는 컬리인물사 진 2대를 5월 9일까지 본사 문화홍보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한)군 소수목(전 광주MBC 국장)씨 장녀 유정(배아프리카)양=4일(일) 오후 3시 서울 천주교 논현2동 성당. 부음 ▲심우순씨 별세 김영철(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선희(약사)씨 모친상 장흥식(메디칼 피부·비노기과 원장)·위구복(미래로21C병원 원장)씨 모보상=발인 3일(토) 전남대병원 영안실 1분향소. 220-6981. ▲장남씨 별세 이은구씨 상배 이송환·승무씨 모친상=발인 3일(토) 그린장례식장 10분향소. 250-4410.

광주일보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Includes contact info: phone 001-107-228160, fax 062-227-9500.

산행안내. 5월 4일(일) ~ 5월 10일(토) hiking schedule with destinations like Mt. Inwang, Mt. Inje, etc.

광주제1신앙회. 5월 11일(일) ~ 5월 27일(화) church events and activities.